[인도자용]
다음세대가 인도하는
행복한 가족예배 6월 셋째 주

올바른 삶의 태도 [마태복음 25장 21절]

다음 내용을 따라서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해봅시다.(파란색 글씨를 읽으며 인도하면 됩니다.)

오늘 해야할 일

1. 오늘부터 가족예배가 있는 날까지 매일 저녁 가족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온 가족이 함께 가족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게 해주세요.
2)가족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정성을 다해 예배를 준비하게 해주세요.
3)가족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 지혜를 주세요.

2. 이번 주간 가족예배 순서자가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순서를 알려줍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가족들과 함께 순서를 정합니다.)

[기도]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기도를 준비하도록 인도자가 이야기해줍니다. 기도내용은 순서지를 따라도 좋고, 순서자가 스스로 준비해도 좋습니다.

[말씀] : 가족 구성원이 순서를 정해 돌아가면서 준비합니다. 순서자가 미리 말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자 순서지를 보여주고 준비하도록 합니다.(인도자가 맡아서 해도 좋습니다.)

가족예배 10분전

예배 준비를 시작합니다. 가족들에게 예배시간이 10분 남았음을 알려주고 함께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시작 10분 전에는 찬송가 연주를 틀어놓고 예배 장소를 세팅하여 가족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 시간 10분 전이에요. 하던 일을 멈추고 예배를 준비해요.]

가족예배 5분전

예배 장소 세팅이 끝났으면 성경책과 순서지를 준비하고 가족예배 장소에 모여서 각자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질 가족예배를 준비하며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해요.]

사 도 신 경

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며 가족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 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 도

기도순서자가(아빠, 엄마, 동생, 나) 기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족구성원 중 한 명이 기도자가 되어 기도를 준비합니다. 순서지에 있는 내용 또는 기도자가 준비한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찬 송

함께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반주에 맞추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 내 맡은 본분은 *음원 파일을 준비해서 보내드립니다.

말 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올바른 삶의 태도"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 씀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태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떤 태도와 자세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모습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같은 시간이 주어져도 그 시간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며 낭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많은 것을 이루고 성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하는 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들은 기다림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할까요?

함께 따라합니다.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는 삶입니다.
주인은 떠나면서 종들에게 각각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맡겨진 달란트로 장사한 종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 모양과 크기는 전부 다르지만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입니다. 남들과 비교하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작다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생각해야합니다.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매일 매일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가꾸어 나아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재능을 사용한다면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달란트를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간 것은 주인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들을 부리며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잃을 것을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달란트를 그대로 남겨 주인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주인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할 것이 두려워 믿음의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뒷짐 지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위해 생명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며, 우리보다 앞서 일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은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너무나도 가치 있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나에게 맡겨진 것들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받는 우리 가족 되길 바랍니다.

은혜선포 서로를 향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의 태도로 살아갑시다!”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겠습니다!”

우리가족 신앙스토리 오늘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읽고 함께 나누어봅시다.

1) 당신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서 당신이 감당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인가요?

2) 주님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것은 무엇이 있나요?(시간, 물질, 재능 등) 주님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고 나누어봅시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족미션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서 주님께 충성! 이라고 외친 후 하루를 시작하기